



대학교수의 바람직한 NGO 활동

손 봉 호 |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최근 우리나라에 수많은 NGO들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 NGO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숫자의 대학교수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도 시민운동은 대학교수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교수들의 NGO 참여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대학교수의 NGO 활동이 과연 바람직하며, 바람직하다면 그들이 NGO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인가?

I. NGO 활동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NGO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활발해졌다. 그 전에는 민주화운동이 민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했고, 사회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정의 운동도 지식인들의 관심사였다. 그런 활동들은 비정부 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기보다는 상당할 정도로 '반' 정부 운동이었고 부분적으로 '불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룩되자 시민

들이 반드시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하면서까지 정치개혁이나 인권운동을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NGO는 비록 비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정부와 독립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NGO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업무와 관계된 것이라야 할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든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하는 일을 대행하든지 해야 NGO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르너(Gellner)는 시민사회를 "전체 사회에서 국가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시민사회의 임무를 "국가로 하여금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고 임무가 아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구체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NGO는 어디까지나 정부와 관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NGO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지 비록 간접으로라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 NGO 지도자들이 정치에 입문함으로써 NGO가 공익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들의 정계진출 수단이란

오해를 받게 한 것은 한국 사회와 NGO들에게 큰 손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가는 아직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처벌권, 조세권, 징집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것들은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큰 힘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그 힘을 남용할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행사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부패할 유혹도 커지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주기적인 선거,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등으로 권력의 남용을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그런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권력의 오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시민의 이익보다는 개인 혹은 집단의 자기이익을 챙기고, 무사안일에 빠지며, 지배계층의 압력에 쉽게 굴복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없다. 물론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런 부정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감시하고 독려해야 민주주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NGO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NGO의 주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비록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 무사안일과 게으름, 기계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 집단이기주의 등의 한계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시민의 이익 이외에 다른 동기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NGO들이 시민들의 이익과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외교적, 혹은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 마땅히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제도와 정책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NGO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위상과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히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정부의 위치를 강화해 줄 수도 있다.

만약 시민들이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가의 임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NGO라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봉사가 목적이라야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이익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중요하면 그럴수록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임무 일부를 NGO가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과 영향력을 그만큼 축소하는 것이고 부패의 가능성을 그만큼 줄인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경우, NGO의 봉사는 공무원의 기계적인 임무수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다. 미국은 복지의 상당부분과 교육의 대부분을 민간인 조직에 위임함으로써 효율성은 높이고, 국가의 영향력은 축소한다. NGO에 주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고, 많은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그들이 공익을 위한 정부의 임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견과 이익이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을 분산하여 독점과 남용을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NGO는 주기적인 선거, 삼권분립, 비판의 자유 같은 제도적 장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직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활발한 NGO 활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진전된 상태를 반영한다 할 수 있다.

II. 모든 교수가 NGO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NGO의 활동이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수를 평가하는 영역을 연구, 교육, 봉사에 둔다. 그러나 그런 평가 영역이나 기준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다른 평가기준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수의 평가기준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학이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 교육이 그 임무의 전부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학 혹은 다른 이름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설립된 목적은 바로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공무원, 성직자, 의사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혹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지,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나 사회에 직접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교육이 전부였고 연구는 부차적이었으며, 봉사는 전혀 중요

하지 않았다. 위대한 학자로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퇴계, 뉴턴, 라이프니츠, 케플러, 에라스무스, 그로티우스, 마르크스 등 학자들과 사상가들은 고등교육 기관의 전문 교수들이 아니었다. 요즘도 대학과 무관한 연구소가 많고 어떤 전문 연구소 연구원들은 대학교수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훌륭한 업적들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수의 기본 임무는 어디까지나 교육이고, 그것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최첨단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 그 자체에 주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연구원이자 엄격한 의미에서 교수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단순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도 제시하고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는 교수에게 불가결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와 연구가 지식을 그 내용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두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수가 사회를 위하여 직접 몸으로 봉사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처럼 각 분야가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에서 과연 교수조차도 교육과 연구 이외의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가? 자신들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노력과 시간을 다 바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일에 그와는 무관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뛰어드는 것

“

NGO를 위해서 대학교수가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전문성일 것이다. NGO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실천적인 것이고,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에게도 자신의 지식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연구자로서 의의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수들의 NGO 참여는 자신들의 연구와 교육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

은 오히려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음악에 소질이 많고 그 분야에서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회전체를 위해서도 손해가 아닌가? 약자의 인권보호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음악가는 음악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바침으로써 음악교육과 음악문화 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교수가 다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들, 특히 아주 특수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교수들은 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수업적 평가에서 봉사활동에 큰 점수를 할당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대학교수의 봉사가 반드시 NGO에 국한될 필요도 없다. 봉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다양하고, 그 영역들이 모두 NGO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교수는 반드시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NGO에 봉사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Ⅲ. 한국의 대학교수와 NGO

NGO의 일반적인 성격과 교수의 위치가 구체적인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는 독특한 모습을 띠 수 있다. 한국은 비 서양사회로서 서양에서 시작되고 발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였고, 그것도 서양에서처럼 오랜 세월동안 진화적인 과정을 거쳐 정착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후 바깥으로부터, 그리고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도층이 중심이 되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 반세기간의 발전과정도 빈곤, 전쟁, 이념 갈등, 독재 등으로 정상적이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매우 미숙한 상태에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조차도 아직도 전제주의 시대의 의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이익과 의견이 정부 및 사회 제도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고, 개인의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하며 사회의 약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약점과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과 과정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하여 시작되고 주도될 수 없

으므로 의식이 깨인 소수의 시민들이 이를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자연보호 같은 문제는 공익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보통 시민들은 아직도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이 많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이런 관심에 영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NGO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우리 사회가 충분히 분화되어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의식이 깨인 시민들의 수가 상당하다면 굳이 대학 교수가 이런 활동에 나서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충분히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들이 부족해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학교수들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만큼 언론 매체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가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지성인의 대부분이 대학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변호사들이 조금씩 교수들을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은 교수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 많다. 더구나 NGO처럼 정부의 제도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가장 많이 누리는 집단이 대학교수들이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책임 있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교수들이다.

모든 사회에서 지성인은 대안 제시와 비판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이미 많은 대학교수들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입안에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회의 잘

못을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 못지않게 비판하는 교수들도 많아야 하고, NGO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비판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Ⅳ. 대학교수들의 효과적인 NGO 활동

물론 대학교수는 교육자요, 연구자이므로 NGO 활동에 전념할 수도 없고 NGO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칠 수도 없다. 그리고 NGO의 모든 활동이 다 대학교수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학교수들의 NGO 참여는 중요하지만 역시 부분적이고 부수적일 수 밖에 없다.

대학교수들은 법을 어기거나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유혹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상당한 도덕적 권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지명도를 누리는 교수는 한 NGO의 상징적인 대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대학교수란 사회적 위치와 지명도를 이용하여 좋은 NGO를 사회에 알리고 그 순수성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는 그 NGO의 순수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NGO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자 불순한 동기로 단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계 진출의 디딤돌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대표로 취임할 수 있다.

그러나 NGO를 위해서 대학교수가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전문성일 것

이다. 현대 국가와 사회의 구조와 조직, 그 운영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전문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점을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들이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NGO에게 전문성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대학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비판과 대안 제시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압력을 행사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면 단순히 말과 글로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NGO의 비판과 대안 제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행동을 통한 압력행사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것은 연구와 강의에만 익숙해진 교수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학교수가 그런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 시간과 정력을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바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행동은 NGO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맡길 수 있다.

V. 맺는말

NGO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실천적인 것이고,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에게도 자신의 지식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연구자로서 의의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으로 제시되고 토론될 때 비로소 그 지식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고, 그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이론을 정교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수들의 NGO 참여는 자신들의 연구와 교육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활동에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론적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구체적인 적용까지 교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 줌으로써 도덕적 권위도 얻을 수 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고등교육에 종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지성인들의 임무가 아닐 수 없다. 더 많은 교수들의 더 적극적인 NGO 활동을 기대한다. 

손봉호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하란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기운실 공동대표, 한성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Science and Person』, 『고통받는 인간』, 『오늘을 위한 철학』, 『나는 누구인가』, 『칸트에 있어서 형이상학』, 『문화의 본질』, 『역사철학과 고통』, 『Relativism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외 다수가 있다.